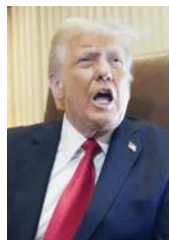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21.27	↑ 코스닥	749.67
	(-0.65)		(+6.77)
↑ 금리 (미국 9년)	2.638	↑ 환율 (원-달러)	1452.10
	(+0.003)		(+4.30)

美, 中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폭탄  
철강업계, 대책 고심  
02



대보름 준비하는 상인들

정월대보름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한 상인이 오곡밥 재료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시

## 美 대통령, 10월 경주APEC 방한

# 트럼프, '소노캠 경주'서 묵는다

현재 5성급으로 리모델링 진행 중  
60평형 이상 초특급 숙소로 개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하는 동안 '소노캠 경주 리조트'에서 묵는다. 소노캠 경주는 현재 리모델링 작업 진행 중으로 오는 10월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개최될 경주 APEC 기간 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은 소노인터내셔널 산하 5성급 리조트인 '소노캠 경주'에 묵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노인터내셔널은 기존 '소노벨 경주(3성급)'을 소노캠 경주(5성급)로 브랜드 레벨을 격상시키기 위해 리뉴얼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 기한은 지난해 9월부터 APEC이 열리는 오는 10월까지이다.

앞서, 소노캠 경주는 지난 2006년 '대명리조트 경주'로 경주 지역에 첫 자리를 잡은 뒤, 2019년 소노벨 경주로 탈바꿈해 리조트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노후화된 건물을 재단장하기 위해 리뉴얼 작업에 들어갔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건물들을 재단장하



소노캠 경주 전경

/뉴스시

기 위해 리뉴얼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기존 소노캠 경주는 ▲패밀리형 ▲스위트형 ▲실버스위트형 ▲골드스위트형의 총 471개의 객실 수로 호텔 및 리조트 사업을 전개해 왔다. 가장 상위 레벨의 고가 객실인 골드스위트형은 51평형으로 제공돼 왔다.

그러나 APEC 방한 기간 트럼프 미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거주하게 된 만큼, 새롭게 리뉴얼 중인 소노캠 경주에는 60평형대 이상 방 위주로 개조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북도에 따르면, APEC 관련해 각국 정상들이 묵을 객실인 PRS(Residential Royal Suite)는 안전 기준에 맞춰 60평 이상으로 선정됐다.

PRS는 APEC 같은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중요 관계자(VIP)들을 위해 준비되는 초특급 숙소로, 최상의 보안과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한편,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사명을 바꿔 새롭게 개관한 뒤 계속해서 지점을 재단장 및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9년엔 소노캠 고양을 377에서 826실로 2배 이상 확장했으며 2020년에는 소노팻클럽앤리조트를, 2021년에는 소노팻리치 텔피노를 개관했다.

또, 지난 2023년 5월에는 소노캠 비발디파크, 6월에 소노문 텔피노, 7월에 소노문 해운대를 연달아 재단장해 리뉴얼 오픈한 바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불공정 거래·회계분식 근절 유증·공개매수 등 심사 강화”

금감원 '자본시장 감독 계획'  
상승 전력자 수법 DB화해 활용  
이복현 “혐의 발견시 엄정 조치”



속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과거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불공정거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력자와 수법, 이용된 주요 법인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DB화해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 및 회계분식 근절을 위해 유상증자·공개매수·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시세조종 전력자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0일 '2025년 자본시장 감독 계획'을 발표하며 “불공정거래 상승 전력자와 전문가 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 시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감시 대상은 사모 전환사채(CB) 약용, 신규사업을 가장한 사기, 쯤비기업 유지, 공개매수 직전 급등 폭동 등이다.

금감원은 상장 예정 기업과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 심사를 강화하고, IPO 기업에 대한 심사·감리를 한층 더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면서 시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주요 합병, 유상증자 계획에 수차례 제동을 건 바 있다.

특히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상승 전력자의 DB를 구축해 혐의 발견 시 신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공사·조사·회계부서 간 협업도 강화된다. 이 원장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사익편취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공사·조사·회계 검사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조사와 검사를 통합해 회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종합적인 문제점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 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내부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유상증자와 합병·분할 등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3월에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ATS) 출범이 예고된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美, 캐나다産 원유 관세 예고... 韓에 기회?

정유업계 공급망 다변화 '주목'  
SK이노·현대오일 "도입 검토"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글로벌 원유 시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원유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캐나다산 원유의 주요 수출 경로에도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캐나다산 원유가 아시아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며 국내 정유업계도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주목하는 모습이다. 다만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향후 정책 변화에 따른 원유 도입 전략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제품에 25%, 원유에 10%의 관세를 부과하

기로 했다. 이후 관세 적용이 30일간 유예됐지만 미국은 언제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산 원유의 아시아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정유업계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산 원유가 북미 내 수요 감소로 공급에 여유가 생길 경우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이를 도입한다면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캐나다산 원유 가격은 지난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 배럴당 65달러에서 최근 60달러 내외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북미 서부텍사스 원유(WTI)는 배럴당 71달러, 두바이 원유는 배럴당 77달러를 기록하며 캐나다산 원유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주요 정유업계는 최근 캐나다

산 원유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업계는 유종별 시황 변동에 따라 최대 마진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유 공급선 다변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일 컨퍼런스 콜을 통해 “올해 1분기 미국산 원유 도입 비율은 약 20%로 예상되고 기회에 따라 캐나다산 원유도 도입 예정에 있다”라며 “미국산, 캐나다산 원유 프리미엄 변동에 따라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향후 상황이 닿는 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 또한 지난 6일 “미국으로 넘어가지 못한 캐나다산 중질유가 시장에 많이 공급돼 저희 같은 중질유를 원하는 회사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 메트로 한줄뉴스



▲ 홍준표 “윤석열 탄핵, 인용도 기각도 걱정... 좌우진영 승복 안 할 것”  
▲ 오세훈 “이재명, 혼자 개헌 논의 귀 막고 있어... 동참해달라” /사진 뉴스시

▲ 야 국조특위, 국정조사 기간 연장 검토... “핵심 당사자들 국조 보이콧”  
▲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 대선후보 바뀌어... 이재명 직격

▲ 경남도, 환경부에 ‘조류독소 검출 논란’ 공동조사 건의  
▲ 이장우 시장, 추진 사업 조기 완료... 민생예산 조기 집행 지시